

제62회 식목일 및 북악산 전면개방 기념행사

■ 제62회 식목일 기념행사 모두발언 전문

반갑습니다. 어릴 때 저도 나무를 많이 심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때는 왜 심는지 실감도 안 나고 귀찮기만 했습니다. 어른들과 마을 이장님이 심으라고 하니 심었는데, 얼마 지나 산이 푸르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외를 다녀보니까 한국도 이제 상당히 푸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산림녹화에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아 자랑스럽고, 제가 어릴 때 나무를 심었던 것이 뿌듯하고 보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나무를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산림녹화에 성공한 나라... '건강한 숲' 가꾸는 정책 중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식목일이어야 할까 하는 점에서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계속 해야겠지만, 예전에 식목이 중심이던 산림정책이 조금 바뀐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고 내용도 나무 심는 것보다 중요한 많은 일들이 보고됐습니다. 실제 경험해 보면 나무를 심는 것도 좋지만 가꾸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숲이 울창하고 뽕뽕한 것만 좋은 것인지 알았는데 여러 공부도 하고 의견을 수

럼해본 결과 숲이 건강해야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듯 나무가 크게 잘 자라고 있는데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는 바닥에 키 낮은 나무가 없습니다. 큰 나무만 뻗뻗하고 이렇게 풀과 나무 없이 바닥이 바짝 말라 있는 그런 숲이 예전에는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바닥에도 좋은 풀과 작은 나무들이 자라고 많은 열매들도 맺히고, 큰 나무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숲이 건강한 숲이라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숲은 아직 많이 잘 가꿔야 합니다.

사람과 가까이 어우러지는 숲 만들어야... “숲은 생활의 활력소”

한 가지 더 욕심나는 것은 숲이 사람과 매우 친한 숲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입산이 금지될 곳은 금지해야 하지만, 집 가까이 있으면 들어가서 보고, 관찰도 하고, 즐길 수 있는 숲, 조금 전에 건너온 다리에 세신교라고 마음을 씻는 다리라고 써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붙인 이름일 텐데, 내려다보니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을 씻을 것인가 생각해보니 숲이 사람의 마음을 씻어줄 수 있잖아요. 숲이 마음도 씻어내고, 여러 좋지 않은 것을 다 씻어줄 수 있거든요.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있고 친하게 어우러지고 즐길 수 있는 숲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북악산이 법으로 입산이 금지됐었습니다. 청와대 안전을 이유로 접근 금지 행정 처분 명령으로 금지됐었는데, 이것을 열기로 했습니다. 여는 게 복잡해 한참 걸렸습니다. 지금 4년째 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다 개방하는 데요, 들어와 보면 숲이 따뜻하고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숲인데도 마음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종로 가까이 사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오셨지만, 가까운 종로에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생활에 활력소가 되는 그런 숲, 그런 숲을 앞으로 가꿔 나가는 게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식목일을 당겨야 한다는 얘기도, 명칭과 시기 문제도 한번 연구해 보시구요. 숲을 가꾸는 쪽으로 정책이 옮겨가면 거기에 따라 이름을 바꿔야 하는지 검토 좀 해보시구요. 오늘 나무를 심을 때 우리 숲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심읍시다. 감사합니다.

■ 북악산 전면 개방 기념행사 모두발언 전문

반갑습니다. 좋으시죠? 저도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안 했으면 이 생각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쪽저쪽 다녀보니까 참 불편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면 그 다음날 개방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열게 됐습니다. 왜 여기를 개방해야 하는지 꼼꼼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명륜동에 살 때 성벽을 따라 오다가 여기서 딱 막혀 버리거든요. 그 때 제 생각은 성벽을 따라 끝까지 걸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소망이었습니다. 문화재청장을 만나 얘기하다가 이거 열어야 하는데 못 열고 있다고 하니까 아 그게 내 소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때 저도 연다는 생각만 했는데, 왜 열어야 하는지에 대해 오락가락했습니다. 그저 속박이고, 제약이니까 열자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핵심을 못 잡아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있고 또 군부대가 많이 있습니다. 군부대는 청와대도 지키지만 서울 시민의 안전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또 문화재에 대해 안목 있는 분들이 보는 것이 달라서 준비해서 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듬고 묻고 다듬고 깎고 그렇게 해서 길을 모두 새로 닦았습니다. 오늘 와 보니까 정말 달라졌습니다. 개방을 해도 손님맞이 준비를 해서 열어야지 그냥 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개방하면 산도 훼손됩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저도 대단히

기쁜 날입니다.

북악산 열게 된 건 남북관계 개선 따른 것… “그래서 ‘역사의 진보’ 필요”

뜻을 보태서 하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과제를 하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을 막은 것도 남북관계 때문에 막았고 열 수 있게 된 것도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열린 것입니다. 북한은 저 멀리 있는데,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또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여기 이 길이 열렸다 닫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남북관계가 더 나아지고, 적대적인 관계가 없으면 곡사포나 방공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남북 간 거리가 너무 가깝고 서로 신뢰가 충분하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걸어 올라오실 때 벽이 좀 막혀 있어서 답답했지 않았습니까. 아름답게 꾸며 놓긴 했지만,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진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밑에서 나무 몇 포기 심고 왔는데 북악산에 나무 심으라고 하면 실감이 안 나시겠죠. 한국이 산림녹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만큼 성공한 나라인데, 북악산 같은 산은 일반적으로 나무가 뺄뺄하다고만 좋은 게 아니고 건강한 숲이라야 좋은 겁니다. 건강해서 그 안에 많은 다양한 종이 크고 작은 나무가 함께 있고 식물과 동물이 함께 있고 사람도 거기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숲으로 앞으로 바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과 가까운 숲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악산 바닥이 아주 메말라 있습니다. 그것을 산림청장께서 가꾸어 주신다고 합니다. 산림청 예산이 할 일이 참 많지만 서울시민이 앞뜰 뒤뜰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숲이 될 만한 숲인데, 가꾸주신다고 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 다 하로 있습니다.

“북악산, 편하게 설 수 있는 시민의 뜰 되길”

아마도 1-2년 안에 되는 일이 아니라 올해는 기본으로 하고, 한 10년 또는 20년 계획을 세워 이 숲이 진정한 의미에서 모범적인, 가장 건강한 숲이면서 친할 수 있는 숲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올라오는 데 세신교라는 나무다리를 만들었더라구요. 물도 없는데 어떻게 썼어 했는지, 몇 발 짝 걷고 보니까 마음을 씻는 게 숲으로 씻는 거예요.

산림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주실 겁니다. 시민이 참여해서 10년 계획을 세워 함께 가꾸 나가는 문국현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저분은 나무를 베는 분이니까, 큰 숲 만드는 숲 가꾸기 하시는 분이니까 작은 숲도 하죠? 사람하고 가장 친한 작은 숲을 가꾸는 일이 앞으로 남은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큰 밑그림은 산림청에서 준비해주실 거고, 북악산이 새와 나비, 곤충도 다양하고 습지도 있어서 물에 있는 동·식물들도 함께 접할 수 있는 시민의 뜰이 될 수 있게 가꾸는 것을 함께 노력하는 것이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가 행복해지거든요.

“숲이 곧 문화재” ... 우리 숲, 세계적 문화재로 가꾸어야

외국에 나가 보면 300~400년 되는 큰 문화재급의 좋은 건물들이 있는데, 실제로 민주주의가 되고 나서 웅장한 건축물들은 점점 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사회가 가진 부의 총량에 비해 건축물이 지닌 웅장함은 점차 줄어가고 높이는 계속 높아지고는 있지만, 예술적으로 아주 웅장하면서 빼어난 건축물들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지요. 한국은 3~400년 거슬러 올라가서 그런 문화재를 지을 수 없잖습니까, 지금부터 숲을 가꾸면 나중에 그 숲이 우리에게 200~300년 뒤 엄청난 문화재가 될 수 있을 것 아닌가 생각합니

다. 나중에 문화재 개념도 바뀌어 버리구요. 숲을 큰 문화재로 우리 국민들이 함께 가꾸어 봅시다. 그렇게 100년쯤 하면 세계적인 문화재를 우리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서울은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고 숲이 큰 도시고 그래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잘 한번 해보십시오. 축하드립니다.